

공동체 소식



연중 제27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 본당 평일 미사 일정 안내

-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 평일 미사는 모두 본당 Stone Chapel 에서 있습니다.
- 10월 16일(화) ~17일(수)에는 저녁 미사 없습니다.

▣ 구역 모임안내 (1구역)

- 일시: 10월 13일, 토요일, 7:00 PM
- 장소: 김화년 요안나 텍 10558, Bradshaw St. Overland Park, KS 66215

▣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시: 10월 6일 (토), 9:30 목주기도, 10:00 미사

▣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창세기, 2, 18)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64	210	157	271
차 주	62	511	165	445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예진 한나 김정훈 로베르토
차 주	정예찬 미카엘	김정원 안젤라 김정빈 바오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 주	박태주 로마노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박태주 로마노
차 주	강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30	명	달러	달러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하나로 맺어 주신 것을 인간의 어떤 힘으로 갈라놓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기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순결 그 자체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할 때 조건없는 사랑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미약하나마 감지하곤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사랑 그 자체로 베푸시는 축복의 순간에는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18-24 <둘이 한 몸이 된다.>



-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2,9-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16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신앙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겨난 것이 신들의 질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등을 맞댄 모습으로 한 몸체를 이루었는데, 신들이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인간들을 약화시키려고 반으로 나누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배려에서 남녀가 창조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아담이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자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주십니다.(제1독서) 아담은 하와를 큰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라고 외칩니다. 아담의 탄성은 남녀가 같은 본질에서 나온 존재임을 뜻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분은 되지만, 모두 하느님의 모상(창세 1,27)으로서 동등한 품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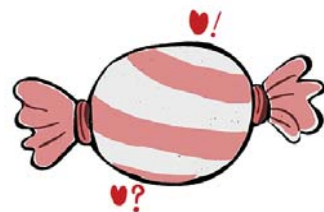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기에(제2독서), 그분께는 남녀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성우월주의나 여성비하도, 그에 대한 반발로 남성을 적으로 여기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를 짐스럽게 여기며 배척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찮게 여겼던 제자들을 언짢아 하셨습니다. 동물은 애지중지하면서 아이는 날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세태 또한 언짢아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이들이 많았기를 바랍니다.

-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아이와 어른

사탕일까?
 ‘네! 주세요.’
 ‘왜 나에게 사탕을 주는 것일까?’
 사탕을 받으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사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탕을 받을 일을 하거나 그런 관계인가?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마르 10,15)

-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길이 주는 선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호기심에 순례길 여행을 얼떨결에 결정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티아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십 년이 지났지만 제게는 늘 어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반에는 이쯤이야 거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빨리 걸다가 이틀 만에 제 발목은 허벅지만큼 두꺼워졌습니다. 한걸음도 고통 없이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여행을 시작한 지 삼일 만에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비로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고행과도 같은 여행이란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무게를 덜기 위해 다시 옷가지와 음식과 생수, 모든 것들을 최소화하고 나니 실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짊어진 무게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만함도 없애니 뻗뻗하게 세웠던 제 고개는 수그러지고 걸음도 천천히 보폭도 짧게 변하면서 그 여행의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의 모습에 질려서 고개를 숙이고 오늘의 목적지를 잘 도착하는 바람뿐 제 머릿속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온통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행 전 복잡한 문제들은 머릿속에서 꺼낼 여유조차 없이 그저 목적지를 향해 아픈 다리를 이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아름다운 풍경이 제 시야에 들어오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차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날까지 매일 매 순간 아프고 힘들 거야. 그러니 아프다고 그만 외치자. 무릎 밑의 고통에 대해선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망먹고 나니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과 마음을 채우며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발목은 아파서 눈물은 불을 타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제 입가는 미소로, 제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산티아고 길을 걸었습니다.

타들어 가는 태양에 눈물 자국이 두 줄로 선명하게 제 얼굴에 자리 잡았을 때 즈음 어느덧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 저는 그때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행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감사하다는 몇 마디를 드리자 갑자기 의식도 없던 고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제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옛날의 잘못을, 기억에서 물어버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제 안에는 성령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어쩔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 김호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



교리상식

축성과 축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축성은 ‘봉헌하여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인 consecratio를, 축복은 ‘좋은 말을 하다’는 의미인 benedictio를 번역한 말입니다. 미사 때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품성사, 주교품 예식, 성당 축성 등에서 축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엔 사람이나 사물이 축성의 대상인 것이죠. 축복도 사람이나 사물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수하든지, 성물 등에 성호를 그으며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지요. 축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성직자들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